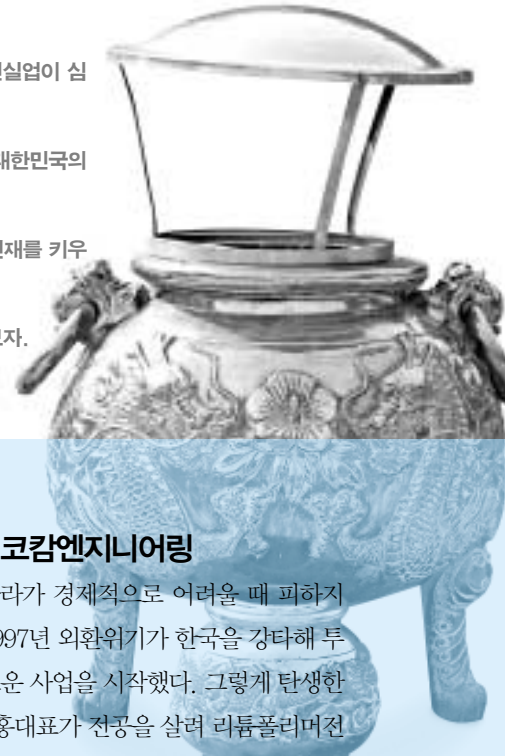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애국열전 퍼레이드!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나라사랑이 남다르다. IMF때는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은 1인1사 채용운동을 통해 실업해소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신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군침도는 인수제안을 거절하는 한편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도 열의를 보인다. 다양한 방면에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파워, 벤처의 애국열전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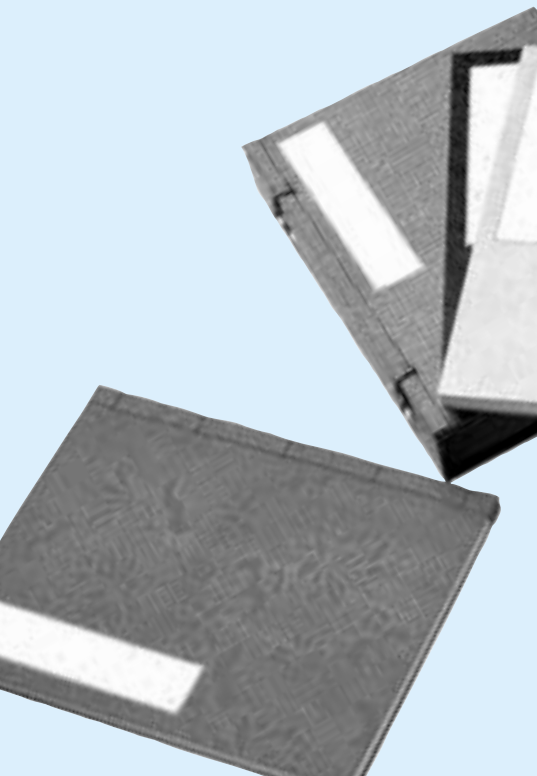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가문의 영광을 비즈니스로 이어가다 **코캠엔지니어링**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홍지준 대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것이 비즈니스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해 투자가 줄고 회사들이 문을 닫을 때,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코캠표' 리튬폴리머전지였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홍대표가 전공을 살려 리튬폴리머전지로 승부수를 띄우기까지는 무려 20여 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제 코캠의 전지는 세계 휴대폰 배터리시장을 석권하고, 전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초소형전지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전기자동차와 보트에 사용되는 대형전지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뚝뚝 땀 흘린 홍대표는 리튬폴리머전지로 애국의 꿈을 이루고 있다.

독서대국으로 문화강국을 선도한다 **밸류랩**

독서대국이 곧 선진국이다. 한달을 기준으로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1인당 평균 독서량이 0.9권이다. 국민의 독서량이 낮은 건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수도 한몫한다. 미국에는 공공 도서관이 9000여 개에 달하고 일본도 2000여 개나 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450개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오프라인에 도서관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밸류랩은 국민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사이버상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공유하며 서로 대여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북모임을 구축했다. 전국민이 가까운 곳에 온라인 도서관을 두고 책을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독서대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밸류랩의 독서대국 만들기 프로젝트가 바로 문화애국이 아닐까?



IT강국과 기술독립국을 앞당길 엘리트를 만든다 비트컴퓨터

'비트교육센터'는 벤처 1호 비트컴퓨터가 사회기여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설립한 IT전문 교육 기관이다. 이 사업은 기술독립국을 만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기여이자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비트교육센터는 정보산업을 이끌어 갈 '상위 1%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사회이후 일본을 앞서본 적 없는 우리에게 일본보다 앞선 IT강국, 벤처가 강한 나라를 이루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990년에 설립된 '비트교육센터'는 지금까지 총 6,867명(2004년 5월말 현재)의 전문 프로그래머를 배출해 냈다. IT강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애국이 아닐까?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킨다 성진씨앤씨

지난해 7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홍콩에서 가장 높은 88층의 제2국제금융센터빌딩이 완공되었다. 관광객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출입자들이 많은 이 빌딩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이 빌딩에는 1300여 대의 감시카메라가 88층 전층을 감시하고 각종 알람과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2개 층에 걸쳐 중앙컨트롤실을 두고있다. 이 빌딩의 보안장비를 공급한 회사는 바로 성진씨앤씨다. 성진씨앤씨는 지난 해 말부터 6개월이 넘는 구축기간을 거쳐 IP(인터넷프로토콜) DVR(Digital video recorder) 1300여 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콜로라도 주정보, 미국 연방교도소, 일본 디즈니랜드, 덴버시 풋볼경기장, 이베이, 맥도날드,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본사 등에도 DVR을 공급하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시청을 비롯한 시티센터에 20여 대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 유명한 빌딩과 사업장에 보안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높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애국!!



소프트웨어의 대한독립을 선포하다 한글과컴퓨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가 기를 펴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 이유가 바로 한글과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시리즈' 때문이다. '아래아 한글시리즈'는 컴퓨터상에서 한글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여주었다. 한때 불법 복제품의 범람 속에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한 자금난이 찾아왔던 1998년 한컴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신 '아래아 한글' 개발을 포기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아래아 한글은 국민의 것이었고, '아래아 한글'을 살리려는 국민의 지원 속에서 토종기업, 토종소프트웨어로 살아남게 되었다.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 잠식이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 한글을 지킨 것은 바로 애국이 아닐런지.

한국벤처의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평정하다 휴맥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휴맥스는 작년에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만으로 3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것은 100% 해외에서 벌어들였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 휴맥스는 유럽·중동의 셋톱박스 소매시장에서 30~40%로 점유율을 보이며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휴맥스가 진출한 곳은 셋톱박스 세계시장의 '1군 리그'이며 소니, 파나소닉, 노키아, 필립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과 경쟁하여 선전하고 있다. 종업원 300명의 순(純)국산 벤처기업이 세계 굴지의 거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외화를 벌어드리는 것도 애국이지만, 기술력 하나만으로 세계무대를 석권하고 있는 휴맥스야말로 진정한 애국기업이 아닐까?

